

안녕하세요. 저는 교환학생으로 대만으로 와 공부를 하고 있는 대구대학교 4학년생 우미미라고 합니다. 대만에서의 교환학기가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에서 NGO활동 참가라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하여, 학교에서 정치를 공부하고 있는 저로서는 매우 영광입니다.

이 기회에 좋은 글을 쓰기 위해 다른 분들의 글을 참고도 하고, 무엇에 대하여 쓸 것인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전 거창하게 이 세계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는 그런 포부는 없습니다. 다만, 저도 지구촌의 한 일원으로써, 지구를 아끼는 맘으로 저의 의견을 적어보자고 합니다.

저는 지금 대만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 인터넷 뉴스를 자주 보는 편입니다. 하지만 볼 때마다 기분이 좋진 않습니다. 바로 '4대강 살리기'라는 국책 사업에 관한 기사 때문이지요.

'4대강 살리기'란 한국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4개의 강을 개발하여,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깨끗한 물의 안정적인 공급, 도시 내 다기능 생태공간확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4대강 살리기'가 아닌 '4대강 죽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환경 보호 단체들의 조사와 그에 기한 통계를 보면, 4대강 주변은 홍수가 거의 없는 지역이 많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개발로 무분별하게 물길을 막고, 땅을 파내어, 지금은 조금만 비가와도 물이 넘치고, 논,밭이 물에 잠긴다고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 멀지 않은 구미라는 곳은 버드나무 밀집지역으로 수려한 풍경을 자랑하던 이 곳이 지금은, 그 예전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 곳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 입니다. 개발이 시작된 곳에선 굴삭기들이 습지를 짓밟고, 하천으로 들어와 식생들을 밀어 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하천과 습지 많은 동물들과, 땅과 강을 의지해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낙동강 부근 뿐만 아니라, 태고적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던 늪지 등 개발이 되고있는 곳들은 이미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림의 출처:<http://cafe.naver.com/haeorumvillage/446>]

#### 4대강 개발로 본 모습을 잃은 낙동강, 고령교 부근

한국의 대통령은 개발만 잘 되어지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경부고속도로사업을 하여 성공시켰듯이, 이 4대강 사업도 그러할 것 이라 합니다. 지금은 많은 반대와 희생이 있지만, 성공만 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한국을 만들수 있다 합니다. 하지만, 강을 막아 자연스럽게 흐르던 강을 커다란 어항으로 만들고, 사진으로 보기도 참혹한 이 환경을 성공의 지름길이라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얼마전엔 북한의 도발로 전 동북아를 전쟁의 위기로

물고 갔습니다. 전쟁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지구가 몇만년을 거슬러 내려오면서 일구어 놓은 이 자연을 인간이라는 이 보잘 것 없는 존재가 파괴하고있다는 사실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한국에선 지금 많은 이들이 이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선 이를 막고 있지요, 저희에겐 언론의 자유도 없는 것 입니다. 정부에 대항하는 말을 하거나, 정부의 귀에 거슬린다면 언제든지 저지를 당할수 있는 것이 지금의 한국입니다. 많은 환경단체들, 스님들,한국의 국토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모아 4대강사업은 아니라 외치고 있지만, 위에 계신 분들께서는 그저 소귀에 경읽기 인 것 입니다. 이미 많은 예산이 4대강 사업으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미 투입이 된 예산은 어쩔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멈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나중 나이가 들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할 입장에서 많이 걱정됩니다. 제가 낳은 아이들이 아름다운 강과 들을 보지 못한 채,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회색돌덩이들만 보게 될 것 같아 말입니다. 자연은 자연그대로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전 제가 나고 자란 한국의 산과 들, 강을 지키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 글을, 저의 의견을 여러분께 알려드린 것만으로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지금 4대강이라는 사업이 실시 되고있는지, 이에 대해 국민들이 진정 어떻게 생각하고있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